

황성규 제2차관, “폭설·살얼음 대비 도로제설에 만전” 강조 -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·중부선 하남드림휴게소 찾아 제설·방역 점검 -

-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도로제설대책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.
- 황 차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교통정보센터에서 도로 살얼음 및 기습적 폭설에 대비한 강원권역의 도로 제설대책 및 비상대응 체계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은 뒤,
 - “상습폭설지역과 살얼음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장비·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, 겨울철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”고 지시하였다.
 - 아울러, “특히, 강원도는 잦은 제설작업으로 인해 비상근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피로가 과중할 것으로 예상되니 제설작업반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휴게시설도 충분히 확보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- 이어 황 차관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 휴게소도 방문하여 실내 매장 밀집도 완화 조치,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코로나-19 방역실태를 직접 점검하고,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.
 -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대책에 대해 보고받은 황 차관은 “최근 일 확진자가 5,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-19가 다시 악화되는 상황으로, 국민들이 안심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”을 거듭 강조하였다

2021. 12. 6.

국토교통부 대변인